

문화

‘빛의 화가’ 방혜자 화백 광주서 작가와의 대화

“빛고을에서 빛그림 전시 빛나네요”

“빛의 도시,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의 한 달은 감동이었습니다.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광주분들이 보여준 따뜻한 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일 광주시 상무지구 무각사(주지 청학스님) 야외 테라스, ‘빛의 화가’로 알려진 재불 작가 방혜자(아·72) 화백은 수줍은 미소로 작가와의 대화 시간에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방 화백은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1961년 파리로 건너가 국립미술학교에서 벽화와 응용미술학을 배우고 50여 년간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해온 화가다.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스위스·독일·스웨덴·벨기에 등지에서



‘빛의 화가’ 방혜자 화백이 지난 3일 무각사문화관에서 열린 작가와의 대화에서 작품세계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무각사 제공)

50여년 프랑스 오가며 활동

佛 초등학교에서 그림 실려

무각사와 인연... 광주 전시회

작품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그의 작품이 프랑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유학생들의 ‘대모’ 역할을 해온 그는 파리 길상사 주지로서 있었던 청학스님과 인연으로 광주를 찾아 첫 전시회 ‘빛에서 빛으로’를 갖게 됐다.

광주와 연고가 없는 그는 이전에 딱 한번 광주를 찾은 적 있다. 그는 1982년 임혹했던 시기, 처음 5·18광주민중항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참배하기 위해 망월동을 찾았는데 그때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다고 회상했다.

빛의 표현을 작가의 사명이라고 느꼈던 그는 빛이 우러나고 또 스며들어 더욱 깊은 빛을 표현하기 위해 평생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한다. 그에게 빛은 예술활동의 근원. 그는 “빛을 그리기 시작한 지 50여년이 되는 지금에도 여전히 빛을 보면 빛과 빛이 춤추고, 선과 색이 노래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어릴 적,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개울가에서 빛을 한 참 동안 바라보다 그 빛을 어떻게 하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때의 느낌이 평생 빛을 그리게 된 씨앗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제강점기와 뒤이은 전쟁의 참상, 4·19까지 어두웠던 근현대사를 겪었



‘우주의 빛’

기에 빛이 절실했으며 하나의 ‘희망’처럼 빛을 갈구하고 그리게 되었다고 말한다.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과 붓으로 그리는데 그리는 그림으로는 원하는 빛을 표현하기 힘들었다는 그는 자신이 종이를 닦고 천연의 재료들로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재료 또한 빛의 근원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광물성 석채나 식물성 염료 등 자연에서 얻은 것들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음으로 그리는 일은 마음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그린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바치는 사랑이며 우주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매순간 새로 태어나 세상을 맑고 밝은 빛으로 물들여 세계를 평화로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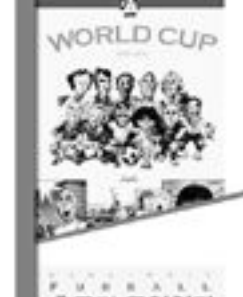
시를 낭송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삼촌의 영향으로 시인이 되고 싶었다는 그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표현한 글을 낭송하며 작가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이날 작가와의 대화 자리에는 우재길·윤장현·황영성·윤애근·허달재·오건택·박지택·강운씨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 성황을 이뤘다.

방 화백은 6일 광주 전시회를 마치고 이달 중 파리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월드컵 시즌... ‘축구책’도 함께 쫓는다



월드컵은 서점가에는 대표적인 약재로 통하지만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월드컵 관련 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서점도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서점가에 월드컵 바람몰이를 하는 책은 이번 월드컵 한국대표팀의 캡틴 박지성의 에세이 ‘더 큰 나를 위해 나를 버리다’(중앙북스 펴냄). 지난달 6일 출간된 그의 에세이는 한국출판인회의의

축구의 역사와 축구 규칙 변천사, 축구공의 역사, 세기의 경기를 비롯해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축구란 무엇인가’(민음인 펴냄)도 인기다.

독일의 축구 전문 작가이자 교사인 크리스토프 바우젠바인이 쓴 이 책은 축구 서적 시장이 상당히 큰 독일에서도 인문의 호평을 받았다고 출판사 측은 밝혔다.

박지성의 에세이 ‘... 나를 버리다’ 베스트셀러에

‘축구란 무엇인가’ 등 인기... 서점가 모처럼 활기

베스트셀러 9위에 랭크됐으며 예스24에서는 출간된 지 한달 만에 3200권이 넘게 판매됐다.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중씨는 아들을 어떻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워냈는지 그 과정을 담은 에세이 ‘가슴으로 꾸민 꿈이 행복한 미래를 만든다’(서울문화사 펴냄)를 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아르헨티나 축구팀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의 축구 인생을 그린 ‘메시 : 축구의 메시아’(중앙출판사 펴냄)와 포르투갈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자서전 ‘최고의 순간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랜덤하우스코리아 펴냄)도 꾸준히 팔린다.

익살스러운 캐리커처로 월드컵 역사와 전설적인 축구선수들을 보여주는 책 ‘월드컵 1930~2010’(오디북스 펴냄)도 축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지네딘 지단이 마르코 마테라치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는 장면,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에게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안긴 헨들링과 ‘세기의 골’이라는 찬사를 안긴 두 번째 골 장면 등 축구팬들의 뇌리에 깊이 남은 순간들이 재치 있게 그려졌다. 또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하는 박지성도 만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만석 지휘자 ‘전통문화원형...’ 책 발간

전통 공연 예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남도립극단 김만석 상임지휘자가 전통 문화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 책을 출간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김씨가 펴낸 ‘컨버전스 시대, 전통문화원형의 문화콘텐츠화 전략’(선학사 펴냄)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통문화의 콘텐츠 방안을 제안하고 있

다. 저자는 우리 민족의 보편 정서인 ‘한과 흥’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원형 콘텐츠는 무엇인지, 한국전통문화원형으로서 풍류감성이란 무엇인지, 우리전통문화원형의 콘텐츠 방안은 무엇인지 세심히 살폈다.

이 책은 새로운 문화원형콘텐츠의 개발전략으로 서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는 스토리텔링 전략과 문화원



형콘텐츠의 브랜드-아이덴티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성균관대(예술철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지휘자는 국립극장 재직 당시 국립극장 토요문화광장 등 다양한 작품을 기획, 프로듀싱 했으며 2001~2006년까지 정동극장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며 연간 400여회의 공연을 기획한 베테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진교향악단 83회 정기연주회

8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유진교향악단 83회 정기연주회가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상임지휘자 김연주(초당대 음악학과 교수)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 중 1·4악장을 들려준다.

또 소프라노 구성희씨가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과 이흥렬곡 ‘꽃구름 속에’를 협연하며 김다은(선화학교 1년), 조선혜(목포 영흥고 1년), 박재영(서울초 6년), 이재은(블로초 4년) 등 예술 꿈나무들이 비발디의 ‘첼로 소나타 5번 E단조’,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4번’, 멘델스존의 ‘피아노협주곡 1번’ 등을 선사한다.



지휘자 김연주 소프라노 구성희

그밖에 ‘리더스 노래하는 천사들’, ‘문샘과 첼로 악동들’도 무대에 선다.

지난 1984년 창단한 유진교향악단은 매년 두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연주회를 열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반인 애송시 낭송대회 ▶ 15일 국악전수관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김종)이 주최하는 ‘제7회 전국 일반인 애송시 낭송대회’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구문화원 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우리시를 보급하고 국어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애송시낭송 대회는 한

편의 시를 통해 정서적 감수성을 되살리고 특별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구문화원 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참가자는 자작시를 제외한 시 한편을 암송하게 되며 시 선택, 낭송기교, 태도, 청중반응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문화원협회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지며 금상·은상·동상 2명, 장려상 5명을 각각 시상한다.

참가 희망자는 11일까지 서구문화원 사무국에 애송시 1편과 연락처를 기재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81-4174. 팩스 062-682-861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Gift'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Includes categories like 백학동산, 광주번역통역, 파크랜드 영암점, 토지심계량전문점, 도로공원식당, 신세계탁구교실, 친구식당, 버들호프, 총정답한마리칼국수, 트라이 성원전문점, 오아시스 모텔, 데림리사, 세탁소, 신한우목장, 해말금마창, 연남이네집, 에이스공인중개사, 시원 영농조합법인, 대민각종화요리, 배모든, 소망분식, (주)동아기술공사, 명호골재, 온정식당, 바다네식당, 영아네깔끔이세탁, 대성식당.